

정부는 AI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「해킹 막을 AI 센터 세워놓고, 예산 91억 전액 삭감한 정부」(중앙일보, 10.6), 「사이버 위협 대응할 ‘취약점관리센터’ 세워놓고…인력·예산 확충 외면한 정부」(경향신문, 10.6) 등 기사에서
 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‘취약점관리센터’의 내년도 운영 예산 요구액이 전액 미반영되었고, 특히 취약점 탐지에 필요한 AI 모델 라이선스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보안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

< 보도설명 >

- 정부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AI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보안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‘27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안을 전년 3,634억원 대비 44% 증액된 5,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- ①우리 기업들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·대응하는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독자 AI 기술에 기반한 보안특화 AI모델 개발을 지원(700억원) 하고, ②보안특화 AI모델 성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한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(550억원) 등 신규 사업을 ’27년 예산안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.
- 특히, 당장의 신종 보안위협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③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등에 632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사이버 취약점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, ④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1만개에 대해서는 AI 보안 솔루션 구독을 신규 지원(500억원)할 계획입니다.

- 향후에도, 지속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안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44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단호 (044-202-6460)
		담당자	사무관	장민영 (044-202-6465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	책임자	과 장	이종혁 (044-202-64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세진 (044-202-6455)
	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환조 (044-214-281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민 (044-214-2811)

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